

2018년 4월 전문건설업(SC) 경기실사지수(BSI)

I. 2018년 4월 전문건설업 경기평가 및 2018년 5월 전망

○ 4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월과 유사한 수준

-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¹⁾는 전월(85.3)보다 소폭 하락한 83.4로 집계되었으나 이는 전월과 유사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음. 그리고 다음 5월은 금월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91.4)되었는데, 통상 3~4월이 동계에서 벗어나 건설공사의 성수기가 시작되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차월에도 건설업황에 큰 이변은 없을 것임²⁾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84.2(86.7→84.2), 지방은 84.4(84.8→84.4)으로 전월 대비 현저한 차이는 없었음. 다음 4월에는 수도권은 소폭 하락, 지방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표-1> 2018년 4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2018년 5월 전망

구분	종합	지역	
		수도권	지방
2018년 4월 평가	83.4	84.2	83.2
2018년 5월 전망	91.4	81.6	84.4



[그림-1]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전망 추이

- 1)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2017년 5월부터 월간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그 이전의 추이는 종전까지 분기조사로 집계된 경기실사지수값을 이용함.
- 2) 참고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분기의 전국 건축인허가면적은 전년 동기보다 3.0%가 증가한 반면 착공면적은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물론 주거용 건축물 등의 세부내역을 본다면 인허가 및 착공면적의 감소와 준공면적의 증가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등도 찾을 수 있음. 하지만 전체적인 수치상으로는 급격한 건설업의 업황하락이 단기에 초래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II.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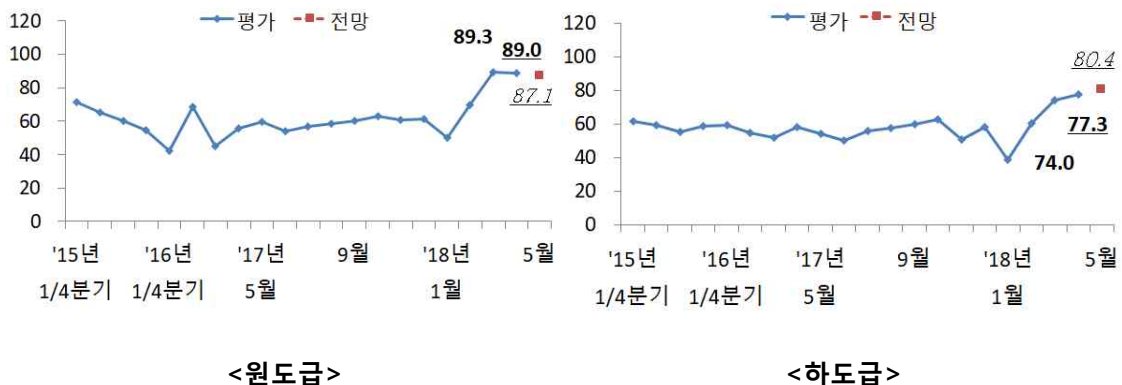
1. 공사수주지수 (원도급, 하도급)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전월과 유사

- 공사수주 경기실사지수는 원도급은 89.0(89.3→89.0), 하도급은 77.3(74.0→77.3)으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냄. 5월의 전망치는 원도급은 금월과 유사³⁾, 하도급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지역별로 보면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84.4→81.6)은 전월보다 소폭 낮지만 대략 유사한 수준으로, 지방(90.9→91.2)도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냄. 반면 하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73.3→68.4)과 지방(90.9→80.0)에서 모두 하락세를 보였음.

<표-2> 2018년 4월 전문건설업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비교)

구분	종합	지역	
		수도권	지방
원도급	'18년 4월 평가	81.6	91.2
	'18년 5월 전망	89.5	86.4
하도급	'18년 4월 평가	68.4	80.0
	'18년 5월 전망	73.7	82.4



[그림-2]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추이

3) 원도급 공사수주지수의 경우 지난 4월부터 줄곧 유사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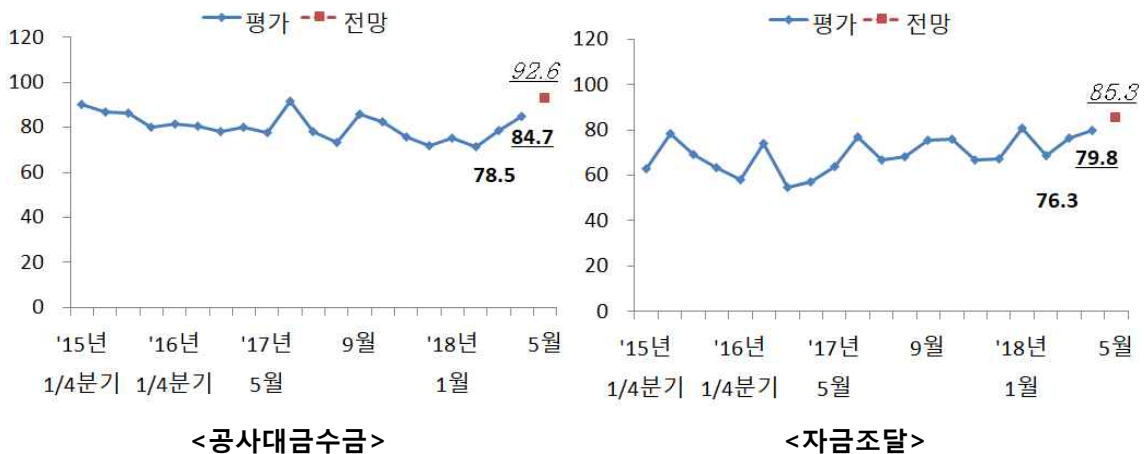
2. 자금관련지수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 공사대금수금지수는 크게 개선, 자금조달지수는 전월과 유사

- 공사대금수금 경기실사지수는 크게 개선된 84.7(78.5→84.7)로,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는 전월과 유사한 79.8(76.3→79.8)로 조사됨. 이와 관련해 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대출잔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그간의 건설경기과 관련해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공사대금수금지수를 수도권(91.1→73.7)은 크게 하락한 반면 지방(74.2→88.0)에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됨.
- 자금조달지수는 수도권(75.6→73.7)은 전월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방(76.5→81.6)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표-3> 2018년 4월 전문건설업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비교)

구분	종합	지 역	
		수도권	지방
공사대금수금	'18년 4월 평가	73.7	88.0
	'18년 5월 전망	89.5	93.6
자금조달	'18년 4월 평가	73.7	81.6
	'18년 5월 전망	76.3	88.0



[그림-3] 전문건설업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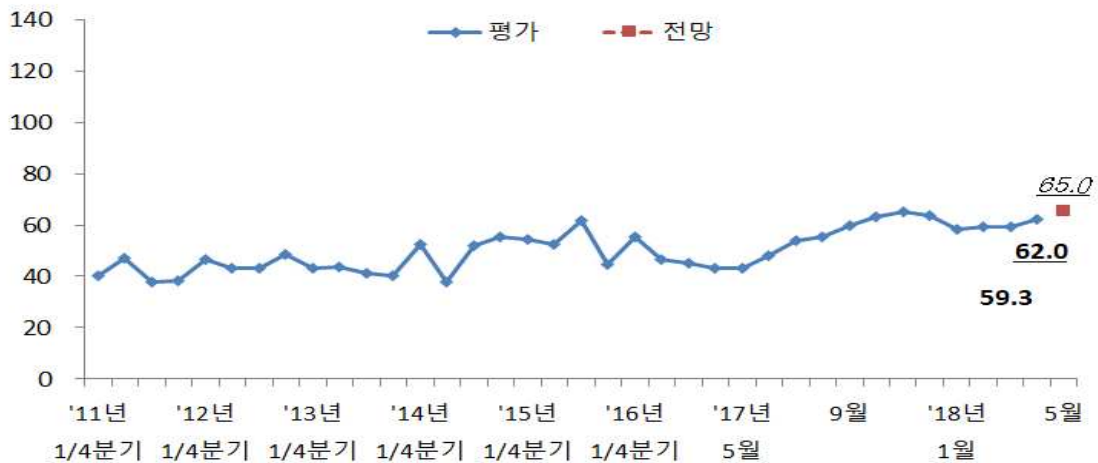
3. 인건비지수

○ 인건비지수는 전월보다 소폭 개선

- 인건비 경기실사지수는 전월보다 소폭 개선된 62.0(59.3→62.0)로 나타남. 이는 전월보다 소폭 개선된 수준이지만, 건설현장의 근로시간 단축 등 인건비지수에 긍정적이지 않은 사안들이 여전히 산재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55.6→47.4)은 전월보다 크게 하락한 반면, 지방(60.6→66.4)은 전월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수도권과 지방간에 고착화되고 있는 건설경기 등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4> 2018년 4월 전문건설업 인건비지수 (비교)

구분	종합	지역	
		수도권	지방
인건비	2018년 4월 평가	47.4	66.4
	2018년 5월 전망	47.4	70.4



[그림-4] 전문건설업 인건비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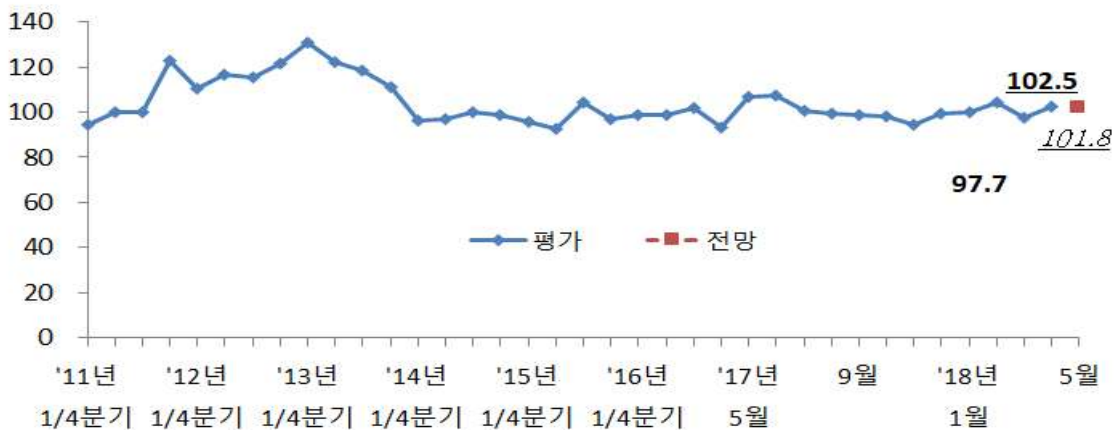
4. 자재수급지수⁴⁾

○ 자재수급지수는 전월보다 개선

- 자재수급 경기실사지수는 소폭 개선된 102.5(97.7→102.5)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 겨울의 한파 등으로 인해 누적된 건설자재 등의 요인이 작용한 판단할 수 있음. 오히려 현 시점의 건설현장에서 주요 자재와 관련한 사안들은 수급이 아닌 가격이 중점인 것으로 알려짐⁵⁾.
- 지역별로는 수도권(95.6→110.5)은 전월보다 개선된 것으로, 지방(98.5→100.0)은 전월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됨.

<표-5> 2018년 4월 전문건설업 자재수급지수 (비교)

구분	종합	지역	
		수도권	지방
자재수급	2018년 4월 평가	110.5	100.0
	2018년 5월 전망	105.3	100.8



[그림-5] 전문건설업 자재수급지수 추이

- 4) 통상적으로 자재수급지수는 타 항목의 지수보다 높게 나타남. 그 이유는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나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자재를 지급받는 경우도 많고, 실무적으로도 자재를 조달하지 못해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극히 드물기 때문임.
- 5) 지난 4월에 발생했던 모 건설사의 수도권 건설현장에 대한 레미콘사들의 공급중단 사례도 레미콘의 단가와 관련해 발생한 사안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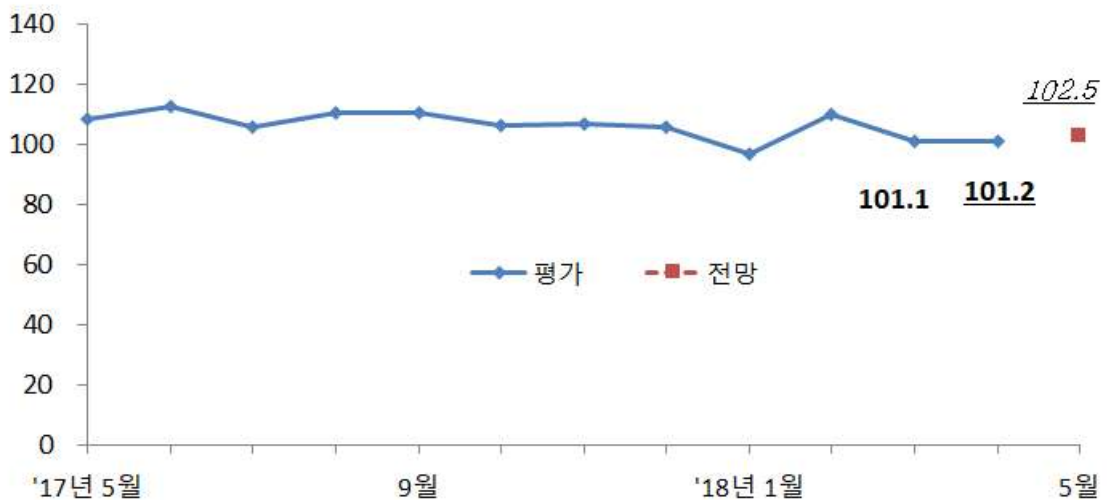
5. 건설장비수급지수⁶⁾

○ 장비수급지수는 전월과 동일

- 장비수급지수는 지난 4월과 사실상 동일한 101.2(101.1→101.2)로 조사되었으며, 그간의 추세를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금월과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해도 무리가 없을 것임.
- 다만 지역별로는 차이를 보여 수도권(102.2→118.4)은 전월보다 개선된 반면 지방(100.8→96.0)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됨.

<표-4> 2018년 4월 전문건설업 건설장비수급지수 (비교)

구분	종합	지역	
		수도권	지방
장비수급	2018년 4월 평가	101.2	118.4
	2018년 5월 전망	102.5	107.9



[그림-5] 전문건설업 자재수급지수 추이

6) 건설장비수급지수는 2017년 5월부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조사에 신규로 추가된 항목임.

※ 참고: 2018년 4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요약표

구분		전체	지역		
			수도권	지방	
전문건설업 경기		금월 평가	83.4	84.2	83.2
		차월 전망	91.4	81.6	84.4
공사물량	원도급	금월 평가	89.0	81.6	91.2
		차월 전망	87.1	89.5	86.4
	하도급	금월 평가	77.3	68.4	80.0
		차월 전망	80.4	73.7	82.4
자금사정	공사대금 수금	금월 평가	84.7	73.7	88.0
		차월 전망	92.6	89.5	93.6
	자금조달	금월 평가	79.8	73.7	81.6
		차월 전망	85.3	76.3	88.0
인건비		금월 평가	62.0	47.4	66.4
		차월 전망	65.0	47.4	70.4
건설자재 수급		금월 평가	102.5	110.5	100.0
		차월 전망	101.8	105.3	100.8
건설장비 수급		금월 평가	101.2	118.4	96.0
		차월 전망	102.5	107.9	100.8

문의: 이은형 (책임연구원, eunhyung@ricon.re.kr)